

## The Key V.

###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 1. 인간의 인식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 속에서 '신'이다. 신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무엇인가? 모든 종교와 그에 근거한 신앙의 기초는, 자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인식의 과정이 중요하다. 신에 대한 인간의 인식에 정도에 따라 소위 말하는 '신앙심'이 생겨나는 것이다. 얼마나 비중있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신앙심'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성경도 마찬가지이다. 성경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한 가지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인식'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구체적이다. 그렇다면 '인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 인식의 사전적 정의** ; “인식(認識, Cognition)은 대상을 아는 일이다.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 / (철학적 의미)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물에 대하여 가지는, 그것이 진(眞)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념. 또는 그것을 얻는 과정.”

사람은 지각, 기억, 추리, 구상, 판단 등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다. 즉, 넓은 의미의 지적 작용이라 말할 수 있는 '인식(인지)'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는 인간의 뇌를 닮은 인공지능의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인공의 뇌가 인간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것이 '뇌의 인식과정'이다.

뇌의 인식과정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뇌는 어떤 사물이나 일을 '의미'로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다. 인간의 뇌는 많은 기관을 통하여 정보를 얻는다. 그런데 단순히 '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가 되는 순간들이 있다. 이 때 뇌는 의미있는 정보들을 조합한다. 그리고 '의미'로 인식된 것을 이미지화 한다. 이 과정이 놀랍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았던 영역들이 인식이라는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미지화' 되었다는 것이다. 이미지화 되었다는 것은, 자신이 의미로 인지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확신, 지각, 구상, 전략 등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인식'한대로 사는 것이다.

인식이란 무엇인가? 한 마디로 인간이 어떤 일을 '의미'로 받아들이는 순간을 말한다. 의미는 '가치'가 되고, 가치가 된 일은 그 사람에게 '신념'이 된다. 그리고 신념은 삶의 중요한 '방향성과 좌표'가 된다.

#### 2. 신에 대한 인식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다. 그리고 신은 모두 '인간'과 관계하고 있다. 세상의 신들의 공통점이 있다. 모두 인간의 '소원'하는 바의 형상인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신들은 '이름'이 있다. '비신, 전쟁신, 연예신, 피의 제물을 원하는 신 등' 농경문화의 사회속에서 농사를 주관하는 '비'의 양은 중요하다. 그들에게 있어서 '비'는 가장 중요한 의미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안에서 '비를 다스리는 신'이 생겨난 것이다. 전쟁, 연예도 이런 의미에서 같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예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의 역사이다.

[출애굽기 32:1, 4]

1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4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너희의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다. 이스라엘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와 같다. 이스라엘이 있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출애굽은 이에대한 구체적인 사건이다.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분, 그들을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과 같은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 시키셨고, 그 절정이 홍해의 기적이다. 그 기적을 본 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 가장 의미있는 존재로 여겼다는 것이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오지않자 불안해 한다. 두려워 한다. 그리고 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기 시작한다. 즉, 더 이상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미가 약해져 가고 있음을 말한다. 한 마디로, 믿음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 것이다. 그 때 그들은 자신의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송아지를 신으로 만든다. 그리고 송아지가 자신을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한다.

결국 무엇이 문제인가? 송아지라는 우상을 신으로 의미 부여했던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라.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의 인식 안에 아직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인식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얕고 미약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 3.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알리셨다는 것이다.

#### (1) 아브라함의 배경과 아버지 데라

[여호수아 24:2-3]

2 그 때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3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 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여호수아의 고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배경이 알려진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 가문은 다른 신을 섬기는 가문이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갈대아 우르이다. 그곳은 달의 신을 숭배하기 위한 큰 사원을 지닌 우상숭배의 도시였다. 데라는 달신을 믿고 있었고, 데라라는 이름 역시 달을 뜻하는 히브리어 '야레아흐'와 연결이 되어있으며, 데라의 며느리 밀가는 달신의 딸이자 여신인 밀카투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사라는 달신인 신(Sin)의 아내인 사라투(Sarratu), 이름을 보더라도 우상과 관련된 이름들이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내신다. 아브라함이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셨다.

#### (2) 이삭의 사건

그 당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문화 중에서 아이를 바치는 '인신제사'의 풍습들이 있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던 사건은, 우상을 섬기던 문화적 배경에서 용인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죽이지 않도록 하셨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그 당시 있었던 신들과 다른 존재임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해속에 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인간들이 인식하고 있는 다른 신들과 다르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 내서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하신다.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하신다.

#### (3) 십계명

[출애굽기 20:2-3]

2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의 첫 계명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20:2-3절의 내용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신들과 다른 존재라는 것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첫 계명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 4.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하늘문을 여는 열쇠이다.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신 ‘믿음’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말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내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하늘문을 여는 열쇠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아셨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마음’이다.

##### (1)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식할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하나이다. 복음을 전하신 것이다. 복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다. 자녀의 영을 갖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식할 수 있고, 그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다.

##### (2)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아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제대로 회복된 사람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 분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고를 하는 사람은 소망, 기쁨, 긍정의 마음이 있다. 그 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른 신과 같지않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아버지’이시며, 그 존재의 인식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이다.

##### (3)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만들어내며, 이것이 하늘의 문을 열쇠임을 명심하자.

예수님의 능력은 위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며, 그 능력의 열쇠는 하나님과 예수님안에 있었던 친밀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